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및 한남시험림 견학

- 일시: 2025년 4월 19일(토) 08:30 ~ 13:00
- 장소: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및 한남시험림
- 이동: 개인 차량, 셔틀 (※ 셔틀 이용이 필요한 회원은 필히 학회에 별도 신청)
- 인원: 60명
- 일정(안):

시간	내용
08:30~09:00	이동 (소노캄 제주 ->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09:00~09:30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견학
09:30~09:50	이동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 한남시험림)
10:00~11:40	한남시험림 견학
11:40~12:30	이동 (한남시험림 -> 오찬장소)
12:30~13:00	오찬 (제주 화목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제주에 위치한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미래 산림경관 유도와 산림자원의 활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203ha의 한남시험림과 1,550ha의 서귀포시험림, 259ha의 곳자왈시험림을 운영하고 있는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현지이행 연구 및 모니터링, 난대·아열대 산림유전자원 보존 및 자원화 육성기반조성 연구를 비롯해 곳자왈 산림자원 발굴 및 활용기술 개발, 지형지질과 역사 문화유적 발굴 및 관리기술 개발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제주지역의 풍부한 산림생명자원을 비롯해 멸종위기종, 희귀종 등의 보전과 증식을 위해 글로벌 수준의 산림생명자원연구동을 준공하여 국내 난대·아열대 지역 연구의 허브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한남시험림]

제주 한남시험림은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과학연구를 위해 하루에 제한된 탐방객들만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한남시험림은 한라산의 남동사면 해발 300~750m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 생태체험숲길로 유명해진 사려니오름을 비롯해 거인악, 마분악 등의 오름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체로 평탄한 길이 이어져 있습니다. 비가와도 물을 머금지 못하고 빠져버리는 용암지대가 대부분인 제주에서 한남시험림은 드물게 물을 머금을 수 있는 습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3,000mm에 달하는 강수량과 온대·난대·아열대 기후 특성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이곳은 삼나무를 비롯해 다양한 수종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상으로는 붉가시나무, 구실잣밤나무, 굴거리나무, 흰새덕이 등 상록활엽수와 서어나무, 졸참나무, 때죽나무 등 낙엽활엽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식동물인 노루와 육식성 포식자인 오소리, 족제비 등 14종의 포유류와 긴꼬리딱새, 동박새, 큰오색딱다구리, 팍새조 등 80여종의 조류, 삼광조, 붉은해오라기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12종이 살고 있습니다.

